

#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삿 1:1-21

2021년 11월 1일(화)

1.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약 410년간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1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와 중 모세가 죽은 후에”(수 1:1)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 땅을 분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정하고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후계자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16, 18절)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서로 약속한대로 증거의 돌을 삼았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향년 110세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사기서가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1절 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참된 지도자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

사사기 1장은 미완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은 미완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파별 땅 분배 지도>를 참조하면서 사사기를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1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2절)

유다가 분배받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족속과 싸우러 올라갈 때,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갑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그 아래 남서쪽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35km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아주 짧게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헤브론 정복이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의 고지대입니다.  
헤브론에는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광야시절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단 두 명의 정탐꾼만 아낙 자손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부짖고 원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간 광야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 1세대인 그들 모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의 흠먼지가 되었습니다.  
광야 1세대 중에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 명의 정탐꾼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유다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은 85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아낙 자손의 지도자들인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죽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한 후, 광야에서 있었던 그날이 생각났을 것이요,  
함께 출애굽했으나 40년 광야 생활동안 결국 모두 광야의 먼지로 사라진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85세의 고령인 갈렙을 통해서 아낙 자손들을 손쉽게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아낙 자손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갈렙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도, 병마도, 귀신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85세의 고령인 갈렙에 의해서 그 강대한 아낙자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도, 병마도, 귀신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 3.

갈렙은 그 기세를 몰아 헤브론에서 약 17km 떨어진 드빌까지 정복하러 갔습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었습니다(11절).  
헤브론에 비하면 드빌은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드빌 앞에서,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 웃니엘이 드빌을 점령해서는 악사를 자기 아내로 얻게 됩니다.

헤브론도 정복한 갈렙인데,  
드빌 정도면 아주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인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갈렙의 뒤를 이어서 유다지파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드빌(기랏세벨)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정복전쟁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고, 새로운 세대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웃니엘을 자신의 사위를 삼아서, 유다 지파를 이끄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웃니엘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웃니엘에게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밭과 샘물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갈렙은 좋게 여겨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었습니다(14-15절).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침노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악사는 시집 가면서 밭과 샘물을 침노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샘물을 차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 4.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묻고 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묻지 않고 갈 때 실수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음성을 듣고 가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 하나님 외에 두려움의 대상은 없습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의 먼지 바람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5세의 갈렙의 손에 그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셋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갈렙도 85세에 헤브론을 요구해서 차지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샘물을 요구해서 차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두드리십시오.

결국 구하는 자에게 얻게하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